





경제 동향

- 요약
- 경기 생산/재고/소비/외국인투자
- 고용 취업자/실업자/물가
- 금융 시중자금사정/창업동향/어음부도율
신용보증동향/수출입동향
- 부동산 건설경기/주택가격

<p>경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산업생산 증가세로 반전 - 2월중 서울의 산업생산은 조업일수 증가로 지난해 2월에 비해 0.4% 증가하였고,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2월에 비해 8.3% 감소됨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소폭 증가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2월에 비해 대형할인점은 8.1% 감소한 반면, 백화점 판매액은 15.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0% 증가함
<p>고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취업자 소폭 증가 - 3월중 서울의 취업자 수는 4,883천명으로 지난 2월에 비해 0.4% 증가하였으며, 특히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 2월에 비해 2.6% 증가하였음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 3월중 서울의 실업률은 5.2%로 지난 2월에 비해 0.1%p 하락함에 따라 2005년 11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하락세로 반전됨 ○ 서울의 소비자물가 소폭 상승 - 3월중 서울의 소비자물가는 각급학교 납입금과 학원비가 인상된 교육비, 가구집기·가사용품 가격, 교통·통신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 지난 2월 대비 0.3% 상승함
<p>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중 국고채 유통수익률 소폭 상승 - 3월중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3월 초반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 외국 인 국채선물 판매도 등의 영향으로 잠시 반등하였으나 3월 금통위 콜금리 동결 등으로 중순 이후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는 안정세를 보임 ○ 3월중 KOSPI 조정 국면 지속 - 3월중 KOSPI 지수는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되는 가운데 3월초 IT 기업들의 실적둔화 우려,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 1300~1370p 대에서 등락을 하다 지난 2월 대비 0.87% 하락한 1,359.60p로 마감함 ○ 원/달러 환율 지난 2월 대비 소폭 상승 - 3월중 원/달러 환율은 3월초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 중반 이후 박스권을 유지하며 지난 2월(970.9원) 보다 소폭 상승한 971.6원으로 마감함 ○ 서울의 신설법인 수 감소세로 반전 - 2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91개 업체로 전국대비 37.8%의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 1월에 비해 4.9% 감소한 수치로 이 중 서비스업이 큰 폭으로 감소함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건설경기 둔화 - 2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대비 51.3% 감소하였으며,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2월 대비 44.9% 감소함 ○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 - 3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2월 대비 1.2% 상승하여 꾸준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동남권·서남권지역과 대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함

| 생 · 산 |

서울 산업생산 11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

■ 전국 산업생산 일시적 증가폭 확대

- 전국 산업생산은 지난해 2월에 비해 20.0% 증가하였으나, 이러한 높은 증가는 지난해 2월의 조업일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조업일수 변화를 감안하면 6.7% 증가함
- 업종별로는 반도체,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에서 주로 증가하여 생산의 호조를 주도함

■ 서울 산업생산 전국대비 소폭 증가

- 서울의 산업생산은 지난해 2월에 비해 0.4% 증가하여 2005년 3월 이후 11개월 만에 증가로 반전됨. 이는 조업일수의 증가로 인한 것임
- 또한 대기업 지방 이전에 따른 중공업제품의 감소가 있었으나, 신학기 수요에 따른 서적류 인쇄출판과 여성의류의 봄 시즌 제품 수요대비로 경공업제품이 증가함

■ 서울 경공업 산업생산 큰 폭으로 증가

- 산업부문별로는 중공업부문의 제조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휴대용 전화기, 액정모니터, 쇼팅 등의 감소로 지난해 2월에 비해 20.7% 감소하였으나 2006년 1월을 제외하고는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음
- 세부업종별로는 컴퓨터 및 사무기기(-60.7%),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55.4%) 등이 감소한 반면, 조립금속(61.9%) 등은 증가함
- 경공업부문에서는 신학기 수요에 따른 서적류의 증가와 여성의류의 봄 시즌제품 수요 증가로 10.7%의 증가를 나타냄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13.6%), 인쇄출판(13.5%), 의복 및 모피(12.6%) 등이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27.8%) 등에서는 감소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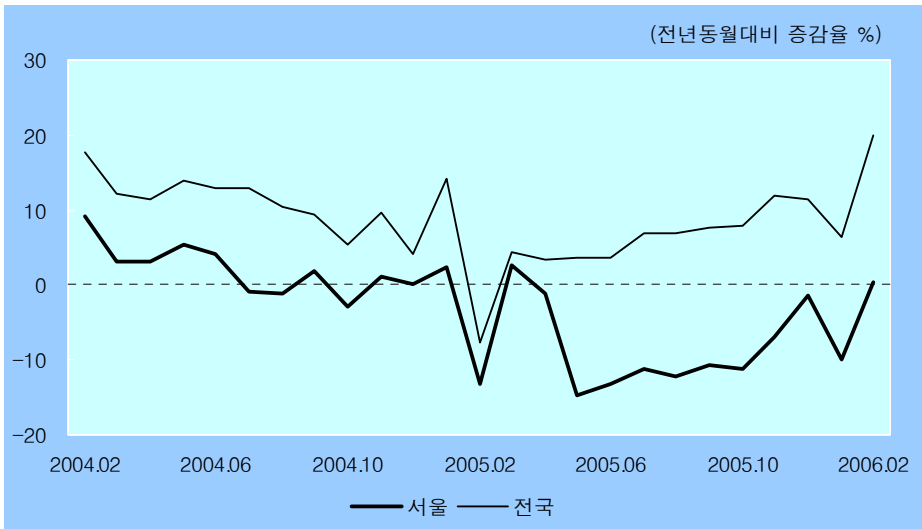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2	2005.10	2005.11	2005.12	2006.1 ^p	2006.2 ^p
전 년 동 월 비	전국	-7.6 (-3.7)	8.0 (1.9)	11.8 (3.9)	11.3 (-2.7)	6.4 (6.0)	20.0 (-4.4)
	서울	-13.2 (-5.2)	-11.3 (-0.7)	-7.0 (4.1)	-1.4 (3.4)	-10.0 (-3.0)	0.4 (-2.8)
	중공업	-22.7 (-18.3)	-34.8 (-4.0)	-26.3 (10.3)	-21.3 (13.8)	-37.0 (-29.4)	-20.7 (2.7)
	경공업	-9.7 (-14.8)	1.5 (9.8)	2.8 (1.4)	8.2 (0.1)	2.1 (-11.0)	10.7 (-7.7)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로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재 · 고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 폭 축소

■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 연말 수준으로 유지

- 전국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2월에 비해 2.4% 증가하여 지난 2005년 5월 이후 보이던 둔화세와 달리 증가세로 반전됨
- 자동차, IT 부문의 재고는 여전히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반도체 부문의 재고는 지난 2005년 10월(2.8%) 이후 급등함
- 세부업종별로는 영상음향통신(-24.2%) 등에서는 감소한 반면 반도체(22.2%), 제1차 금속(13.7%) 등에서는 증가함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 폭 축소

- 서울 생산자 제품재고는 지난해 2월에 비해 8.3% 감소하여 지난해 10월 이후 감소폭 증가가 지속된 것과 달리 감소폭이 소폭 줄어들음
- 이는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1차금속 등은 감소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기타전기기계, 음식료품 등에서 증가함에 기인함

■ 서울 중공업 생산자 제품재고 감소 폭 크게 축소

- 산업부문별로는 중공업부문이 지난해 2월에 비해 38.2% 감소하여 지난 1월 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음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89.5%), 제1차금속(-59.6%) 등이 감소한 반면, 기타전기기계(27.0%) 등은 증가하였음
- 경공업부문은 지난해 2월에 비해 7.8% 증가하여 지난 2005년 12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됨
- 세부업종별로는 음식료품(16.6%), 의복 및 모피(8.4%) 등이 증가함

〈표〉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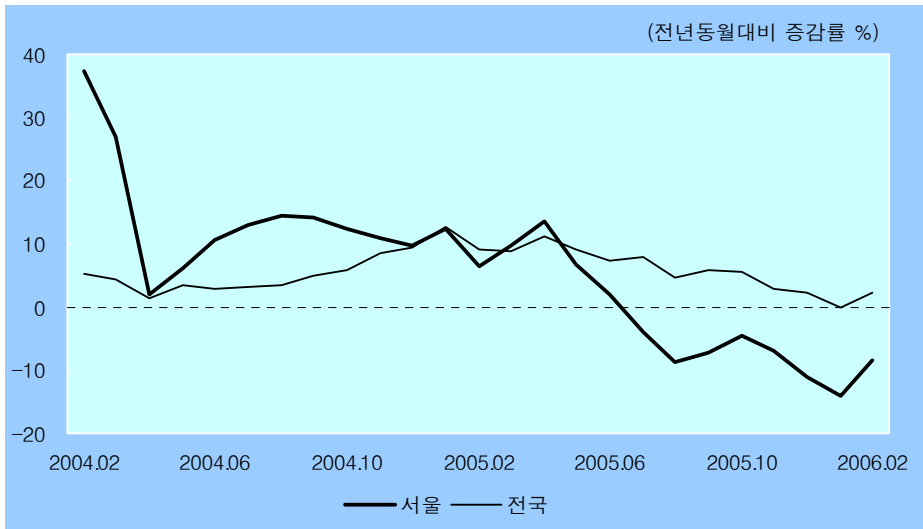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2	2005.10	2005.11	2005.12	2006.1 ^p	2006.2 ^p
전 년 동 월 비	전국	9.1 (-0.1)	5.5 (-0.5)	3.0 (-0.8)	2.4 (1.2)	-0.1 (0.6)	2.4 (1.0)
	서울	6.4 (-0.8)	-4.5 (3.8)	-6.9 (-1.2)	-11.2 (-2.2)	-14.1 (-0.6)	-8.3 (1.8)
	중공업	-10.1 (-13.5)	-38.6 (-2.3)	-38.2 (1.7)	-40.0 (0.2)	-47.3 (-1.7)	-38.2 (1.3)
	경공업	17.9 (-1.6)	14.6 (2.5)	10.3 (-0.9)	4.7 (-3.0)	6.2 (2.9)	7.8 (-0.1)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0=100), 전월비의 중공업, 경공업은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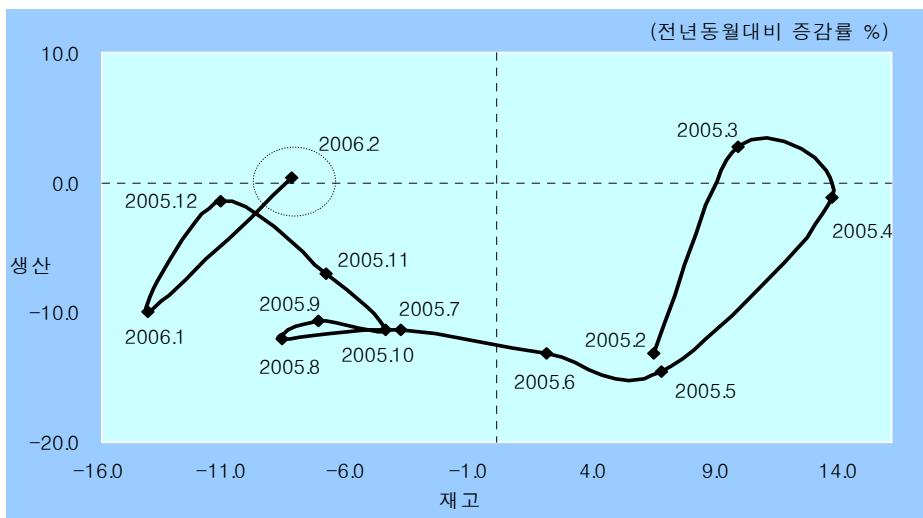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생산자 제품재고 증감률 추이

| 생산 · 재고 순환 |

조업일수 증가로 인해 생산 증가세로 반전

■ 산업생산 증가, 제품재고 감소 폭 축소

- 생산과 재고를 중심으로 한 경기 순환 분석 결과 생산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재고는 감소 폭이 축소되어 의도된 재고 증가로 볼 수 있으나, 생산의 증가가 설 이동효과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됨
- 설 이동효과에 의한 증가이기는 하지만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반전됨



<그림> 서울의 생산·재고 증감률 추이

<Box> 생산·재고 순환 상관표

▶ 생산·재고 순환 상관표

재고 ↓	재고 ↓	재고 ↑	재고 ↑
생산 ↑	생산 ↓	생산 ↑	생산 ↓
수요회복	재고조정	의도된 재고 증가	재고누증

■ 서울의 2월 재고율 감소, 경공업 부문 재고율 확대 지속

- 2006년 2월중 전국의 재고율은 93.2%로 이는 지난 1월 보다 3.9%p 증가함
- 2006년 2월중 서울의 재고율은 139.1%로 지난 1월에 비해 5.3%p 감소함
- 산업부문별로 서울 중공업부문의 재고율은 지난 1월에 비해 10.6%p나 감소한 136.4%이지만 100%를 크게 웃돌고 있어 아직 재고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됨
- 서울 경공업부문의 재고율은 지난 1월 보다 10.8%p나 증가한 168.7%로 지난 2005년 12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재고부담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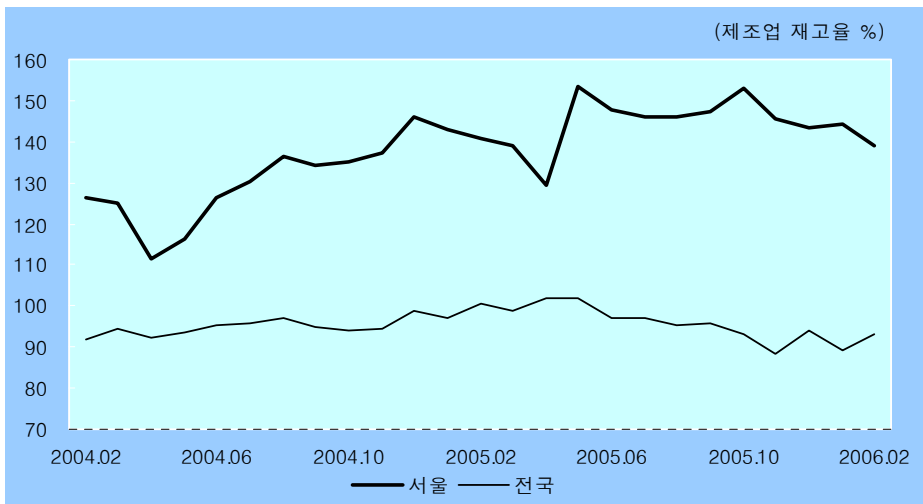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5.2	2005.10	2005.11	2005.12	2006.1 ^p	2006.2 ^p
재고율	전국	91.8	93.0	88.5	93.9	89.3	93.2
	서울	140.7	152.8	145.8	143.3	144.4	139.1
	중공업	158.9	126.2	120.1	109.1	147.0	136.4
	경공업	173.1	144.7	138.4	132.9	157.9	168.7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중공업과 경공업에 대한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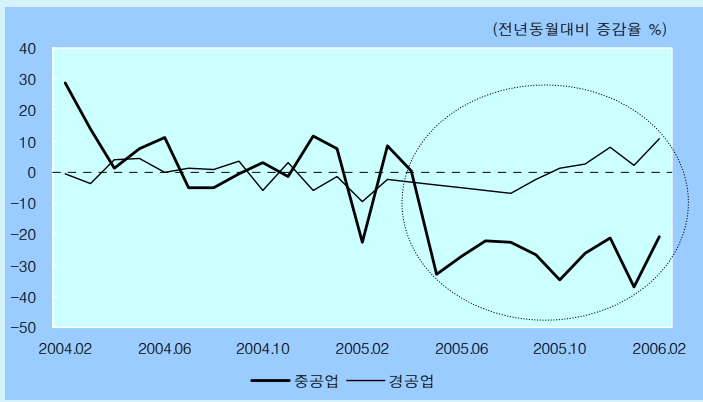
<Box> 서울시, 산업생산지수 추이 특징

▶ 전국과 지역별의 산업생산지수 작성 차이점

- 지역 산업생산지수는 시도별 산업생산품목, 사업체분포 및 산업구조 등이 전국의 평균적인 구조와는 다르므로 전국지수와 별개로 편제되어 작성됨
- 전국의 산업생산지수의 경우 각 시도별로 분포된 개별 사업체들의 영향이 상쇄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시도 지수의 경우 평균치가 전국지수와 다소 다르게 나타남
- 또한, 시도별로 품목별 대상 사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개별사업체들의 영향이 그대로 지수에 반영되며 일부 품목이나 업종의 비중이 두드러져 가중치가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 품목의 등락률 및 변동폭이 더욱 크게 나타날 소지가 있음

▶ 서울지역 산업생산지수 추이 특징

- 최근 지난해 대비 서울지역의 중공업 부분 생산지수가 전년동월대비 전국지수와 상반되고, 경공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2005년 이후에 종업원(해당 사업장 종사자수) 200명 이상의 대기업 사업체의 제조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지역 산업생산지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이러한 이유로 서울지역의 중공업과 경공업간 생산력 증가율에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을 산업양극화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서울의 중공업과 경공업 증감률 추이

출처: 서울지방통계청

| 소 · 비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감소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감소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3조 234십억 원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백화점 부문(6.3%)에서는 판매호조를 보였으나, 의약품·화장품, 음식료품, 서적 문구 등에서 판매가 줄어든 대형할인점(-9.3%)의 판매부진에 기인함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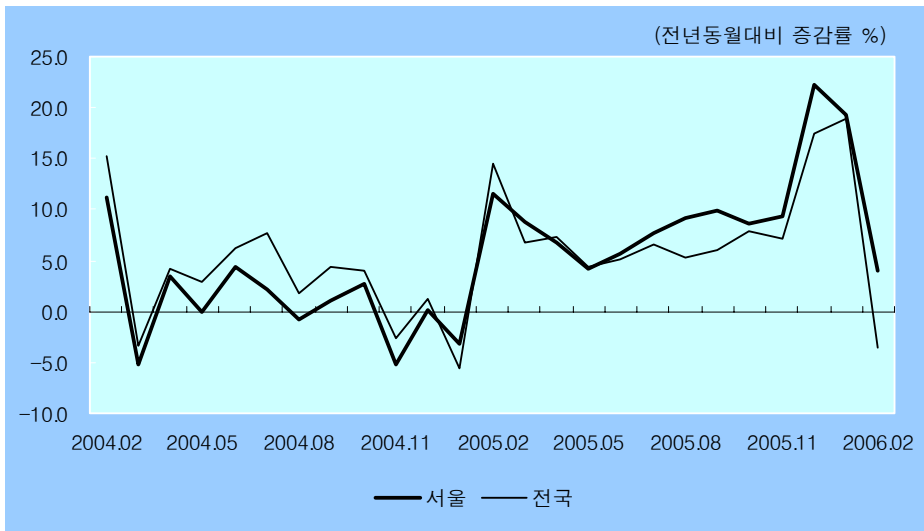
-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76십억 원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4.0% 증가하여 2005년 5월부터 지속되던 증가세가 2006년 1월부터 둔화됨
- 이는 서울 백화점부문의 경우 지난해 2월의 설날 특수 상품인 음식료품은 감소하였으나, 신학기 관련 가전 및 가구 등의 판매호조로 지난해 2월에 비해 15.6% 증가에 기인함
- 또한 서울 대형할인점부문의 경우 설날 특수 상품인 음식료품 및 주방용품 등의 소비부진으로 지난해 2월에 비해 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모두 2005년 12월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특히 대형할인점의 경우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함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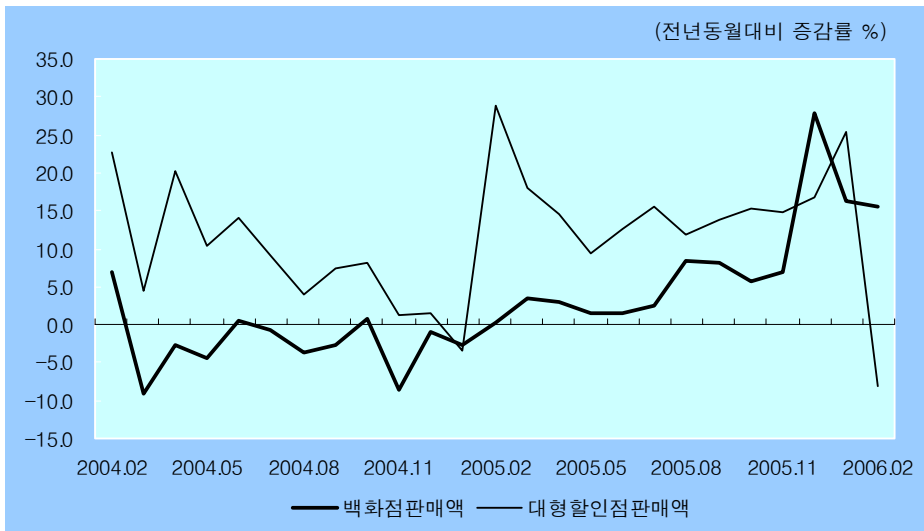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5.2	2005.10	2005.11	2005.12	2006.1	2006.2
판매액	전국	3,352 (14.5)	3,629 (7.8)	3,517 (7.2)	4,087 (17.4)	3,992 (19.0)	3,234 (-3.5)
	서울	1,035 (11.6)	1,257 (8.6)	1,180 (9.3)	1,440 (22.2)	1,341 (19.3)	1,076 (4.0)
	백화점	527 (0.2)	758 (5.7)	682 (6.9)	895 (27.8)	748 (16.2)	609 (15.6)
	대형할인점	471 (28.8)	471 (15.3)	473 (14.7)	512 (16.8)	555 (25.3)	433 (-8.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² 이상인 소매점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외 · 국 · 인 · 투 · 자 |

서울의 외국인 투자 2005년 1/4분기 대비 큰 폭 감소

■ 2006년 1/4분기 전국의 외국인 투자금액 감소

- 2006년 1/4분기 전국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29.3% 감소한 2,210백만 불을 기록함
- 이는 지난해 1/4분기에 초대형 M&A(SCB 제일은행 인수)로 투자금액이 증가 것에 반하여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투자건수에 있어서는 861건으로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0.6% 소폭 증가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73.1%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52.8% 감소하여 제조업 비중이 재고됨(2005년 1/4분기: 18.6% → 2006년 1/4분기: 45.5%)

■ 2006년 4/4분기 서울의 외국인 투자금액 큰 폭 감소

- 2006년 1/4분기 서울의 외국인 투자금액은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47.2% 감소한 1,143백만 불을 나타내며 투자건수에 있어서도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11.2% 감소한 341건으로 나타남
- 외국인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제조업이 89.2%, 10.2%로 나타나 지난해 1/4분기의 97.5%, 2.5%에 비해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서비스업 비중은 감소함
-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지난해 1/4분기에 비해 116.7% 증가한 117백만 불의 투자가 있었으며, 서비스업은 1,024백만 불로 지난 1/4분기에 비해 51.4% 큰 폭의 감소를 나타냄
- 서비스업 내에서는 금융·보험업이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지난해 1/4분기의 82.3%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도·소매(유통)업이 지난해 1/4분기 2.4%에서 크게 증가한 12.4%를 차지함
- 서비스업 중에서 비즈니스서비스업, 도·소매(유통)업 등이 각각 322.2%, 178.4% 증가하여 76백만 불, 142백만 불을 기록한 반면 금융·보험업, 부동산·임대업 등은 각각 62.6%, 31.8% 감소하여 665백만 불, 105백만 불을 나타냄

〈표〉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불, %)

구분		2005. 1/4			2006. 1/4			증감률	
		건수	금액	금액비율	건수	금액	금액비율	건수	금액
전체	전국	856	3,128	-	861	2,210	-	0.6	-29.3
	서울	384	2,164	-	341	1,143	-	-11.2	-47.2
제조업		59	54	2.5	48	117	10.2	-18.6	116.7
서비스업		322	2,109	97.5	289	1,024	89.6	-10.2	-51.4
도·소매(유통)		165	51	2.4	148	142	12.4	-10.3	178.4
음식·숙박		11	1	0.0	6	1	0.1	-45.5	0.0
운수·창고(물류)		6	2	0.1	14	22	1.9	133.3	1000.0
통신		40	33	1.5	3	4	0.3	-92.5	-87.9
금융·보험		14	1,780	82.3	29	665	58.2	107.1	-62.6
부동산·임대		21	154	7.1	12	105	9.2	-42.9	-31.8
비즈니스서비스업		22	18	0.8	57	76	6.6	159.1	322.2
문화·오락		6	6	0.3	17	8	0.7	183.3	33.3
공공·기타서비스		37	63	2.9	3	2	0.2	-91.9	-96.8

주: 투자금액 및 금액비율은 반올림 수치이며 신고기준임

자료: 산업자원부, 서울시 금융도시담당관

| 취·업·자 |

서울의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전국의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2006년 3월중 전국의 취업자는 22,848천명으로 지난 2월 대비 436천명(1.9%), 지난해 3월 대비 272천명(1.2%) 증가함
- 연령별로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4,249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18.6%이며, 지난 2월에 비해 58천명(1.3%) 감소함
-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는 3,857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16.9%로 지난 2월에 비해 290천명 증가하여 8.1%의 높은 증가률을 나타냄

■ 서울의 취업자 수 소폭 증가

- 2006년 3월중 서울시 고용동향 취업자는 4,883천명으로 지난 2월 대비 21천명(0.4%), 지난해 3월 대비 8천명(0.2%)이 각각 증가됨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27천명, 여자는 2,056천명으로 각각 전체 취업자 수의 57.9%, 42.1%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달 2월 대비 남자는 39천명(1.4%) 증가하였고 여자는 18천명(-0.9%) 감소함
-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지난 2월에 비해 10천명(0.9%)감소한 1,081천명으로 이는 방학동안 일자리를 구했던 청년층 취업자가 3월 입학·복학과 함께 일자리를 이탈한 것으로 분석됨
- 고령층 취업자(55세 이상)는 678천명으로 지난 2월에 비해 2.6% 증가하여 2005년 12월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임

〈표〉 2006년 3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구 분		2005.3	2005.11	2005.12	2006.1	2006.2	2006.3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취업자	전국	22,576	23,191	22,699	22,471	22,412	22,848	436	(272)	1.9	(1.2)	
	서울	4,874	4,960	4,938	4,897	4,862	4,883	21	(9)	0.4	(0.2)	
	성 별	남자	2,834	2,857	2,833	2,804	2,788	2,827	39	(-7)	1.4	(-0.2)
		여자	2,041	2,103	2,106	2,093	2,074	2,056	-18	(15)	-0.9	(0.7)
청년층 취업자	전국	4,463	4,355	4,354	4,425	4,307	4,249	-58	(-214)	-1.3	(-4.8)	
	서울	1,146	1,108	1,106	1,115	1,091	1,081	-10	(-65)	-0.9	(-5.7)	
고령층 취업자	전국	3,701	3,988	3,676	3,532	3,567	3,857	290	(156)	8.1	(4.2)	
	서울	656	690	685	668	661	678	17	(22)	2.6	(3.4)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 건설업, 제조업 및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

- 2006년 3월중 서울시 고용동향 취업자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 대비 건설업 23천명(5.7%), 제조업 15천명(2.0%),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7천명(0.4%)이 각각 증가하였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1천명(-2.1%), 도소매·음식숙박업 12천명(-0.8%) 각각 감소함
- 지난해 3월 대비 건설업 17천명(4.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60천명(3.5%) 각각 증가하였고, 제조업 38천명(-4.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천명(-1.8%), 도소매·음식숙박업 24천명(-1.7%) 각각 감소함

■ 전문·기술·행정관리사,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수 증가

- 2006년 3월중 서울시 고용동향 취업자를 직업별로 살펴보면 지난 2월 대비 전문·기술·행정관리사 30천명(2.1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30천명(2.2%)이 각각 증가하였고, 사무종사자 23천명(-2.9%), 서비스판매 종사자 15천명(-1.2%),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18.2%) 감소함
- 지난해 3월 대비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를 제외한 모든 직업에서 취업자가 증가하였음. 전문·기술·행정관리사 22천명(1.5%), 사무종사자 13천명(1.7%), 서비스판매 종사자 557천명(82.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33.3%), 30천명(2.2%)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는 1천명(-0.1%) 감소함

■ 서울의 임금근로자 수 증가

- 2006년 3월중 서울시 취업자를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전체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27.2%, 임금근로자는 72.8%임
- 비임금근로자 중 84.1%가 자영업주, 15.9%는 무급가족종사자이며, 임금근로자중 상용은 48.8%, 임시는 36.6%, 일용은 14.7%를 차지함
- 지난 2월 대비 비임금근로자는 14천명(-1.0%)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35천명(1.0%) 증가하였음. 지난해 3월 대비 비임금근로자는 73천명(-5.2%)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82천명(2.4%)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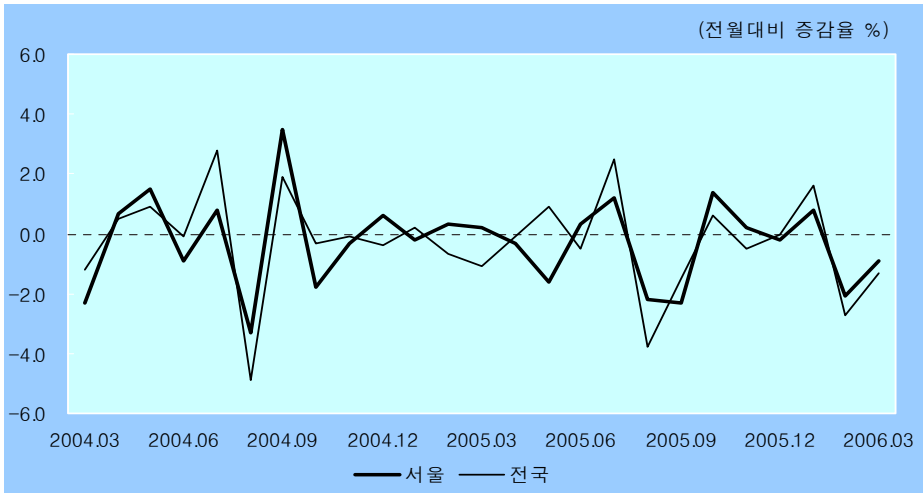
〈표〉 2006년 3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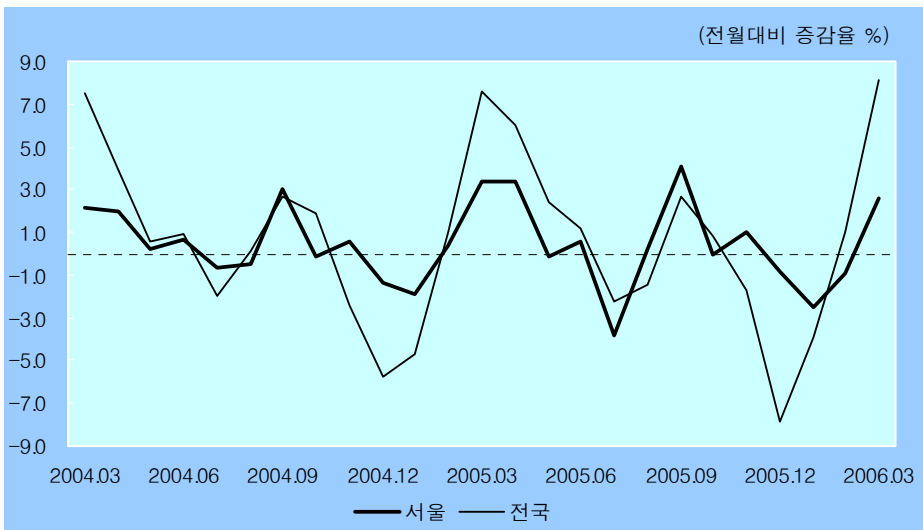
구분	2005.3	2005.11	2005.12	2006.1	2006.2	2006.3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산업별 취업자	농림어업 및 광공업 ·제조업	821	788	778	763	771	787	16	(-34)	2.1	(-4.1)
		818	779	771	757	766	781	15	(-36)	2.0	(-4.5)
	SOC 및 기타서비스업	4,054	4,172	4,160	4,134	4,090	4,096	6	(43)	0.2	(1.0)
	·건설업	409	412	410	411	403	426	23	(17)	5.7	(4.1)
	·도소매·음식숙박	1,428	1,426	1,447	1,433	1,415	1,404	-12	(-24)	-0.8	(-1.7)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690	1,806	1,773	1,753	1,743	1,750	7	60	0.4	(3.5)
	·전기·운수·통신·금융	526	529	531	538	528	517	-11	(-10)	-2.1	(-1.8)
직업별 취업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	1,445	1,455	1,456	1,442	1,436	1,466	30	22	2.1	(1.5)
	사무종사자	751	797	804	795	786	764	-23	13	-2.9	(1.7)
	서비스·판매종사자	679	1,270	1,262	1,259	1,251	1,235	-15	557	-1.2	(82.1)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3	6	6	5	4	4	-1	1	-18.2	(33.3)
	기능·기계·조립·단순종사자	1,415	1,431	1,410	1,397	1,384	1,414	30	-1	2.2	-0.1
중사상 지위별	비임금근로자	1,400	1,385	1,370	1,356	1,341	1,327	-14	(-73)	-1.0	(-5.2)
	임금근로자	3,474	3,575	3,568	3,541	3,521	3,556	35	(82)	1.0	(2.4)

주: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실 · 업 · 률 |

서울 실업률 소폭 하락

■ 전국의 3월중 실업률 소폭 하락

- 2006년 3월중 전국 실업자는 921천명으로 지난달 2월에 비해 32천명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월 대비 35천명 감소함
- 실업률은 지난 2월에 비해 0.2%, 지난해 3월 대비 0.2% 감소하였으며 2005년 11월 이후 지속되던 증가세가 3월중 하락세로 반전됨

■ 서울의 실업률 소폭 하락

- 2006년 3월중 실업자는 266천명으로 실업률은 5.2%로 전국의 실업률 3.9% 보다 1.3%p 상회함
- 지난 2월에 비해 실업자는 5천명, 실업률은 0.1% 감소하였으나 지난해 2월 대비 실업자는 3천명, 실업률은 0.1% 증가함
-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지난 2월 대비 남자는 2천명(-1.4%), 여자는 2천명(-1.7%) 각각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남자 0.2%p, 여자 0.1%p 각각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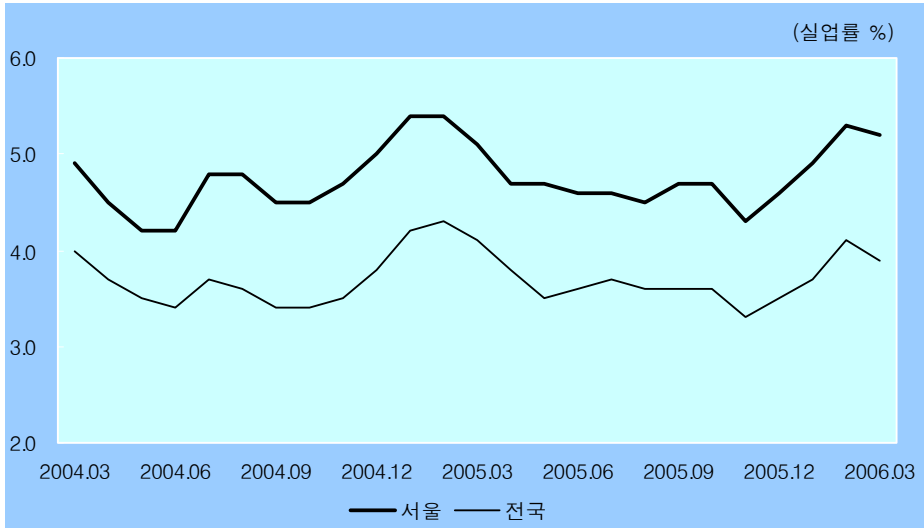
〈표〉 2006년 3월 실업동향

(단위: 천명, %, %p)

구 분		2005.3	2005.11	2005.12	2006.1	2006.2	2006.3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실업자	956	785	827	869	953	921	-32	(-35)	-3.4	(-3.7)
	실업률	4.1	3.3	3.5	3.7	4.1	3.9	-0.2	(-0.2)	-	(-)
서울	실업자	263	222	239	253	271	266	-5	(3)	-1.8	(1.1)
	실업률	5.1	4.3	4.6	4.9	5.3	5.2	-0.1	(0.1)	-	(-)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Box> 「노숙인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추진

▶ 추진취지

- 서울시는 노숙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높여 자립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건설현장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노숙인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함

▶ 추진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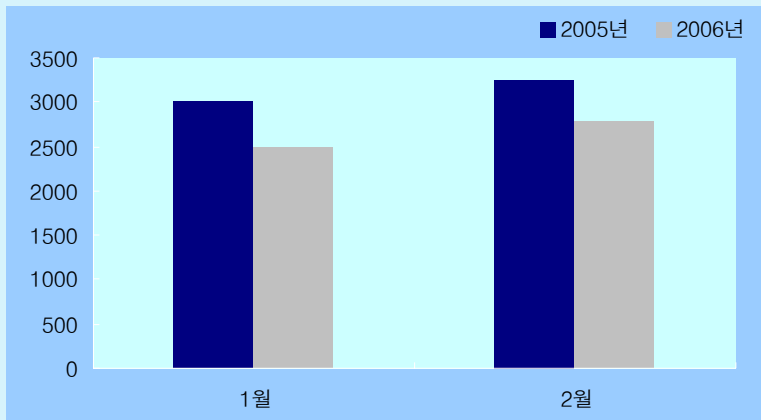
분류	내용
추진기간	2006.1.23 - 2006.12.31 1단계: 2006. 2. 6 - 12. 31 2단계: 2006. 3. 13 - 2006. 12. 31 3단계: 2006. 5. 8 - 2006. 12. 31
소요예산	10,040백만 원 (시비 50%, 5,020백만 원)
참여인원	1단계: 464명 2단계: 622명
참여 사업장	30개 (1,100명) 건설안전본부 30개 (285명), 지하철 건설본부 20개 (270명), 상수도 사업본부 85 (130), SH 공사 57 (150), 실·국 사업소 97 (156), 공단공사 16(19), 자치구 46 (60), 기타 2 (30)

- 1, 2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차 사업 추진 중임
- 참여 노숙인 인건비의 50%를 시가 지원하며, 참여 노숙인에 대해서는 주거확보 또는 시설 입소조건을 부여하였음

<Box> 계속

▶ 추진실적

- 현장배치 1,100명 중 다 분야 취업 등 퇴소자 150명을 제외한 950명을 대상으로 참여율을 산정한 결과 4월 20일 현재 615명 64.7%의 참여율을 나타냄
- 이벤트성 사업이라는 시행 초기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역·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하는 거리노숙인 수가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 불리움
- 서울역·영등포역 등지에서 노숙하는 거리노숙인 수는 2005년 4/4분기 719명(일일평균)에서 2006년 1/4분기 483명으로 32.8% 감소함



자료: 전국실직노숙인대책 종교시민단체협의회

<그림> 서울시 노숙자 수

| 물 · 가 |

서울 소비자 물가 소폭 상승

■ 전국 소비자 물가 소폭 상승

- 전국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120.2로 지난 2월 대비 0.5%, 지난해 3월 대비 2.0% 상승하여 10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함에 따라 안정세를 나타냄
- 채소류, 과일류 등의 출회증가로 농축산물이 내렸으나,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납입금, 학원비 등 공공 및 개인 서비스 부문이 오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서울 소비자 물가 소폭 상승

- 2006년 3월 서울시 소비자 물가지수는 121.6으로 지난 2월 대비 0.3%, 지난해 3월 대비 2.0% 상승함
- 식료품, 광열 수도, 보건의료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각급 학교 납입금 및 학원비의 인상되고, 가구집기·가사용품, 교통 및 통신 등에서 지난 2월 대비 상승함

■ 공공 및 개인서비스 부문 소폭 상승

- 채소류의 출회가 증가한 농축산물과 공업제품을 포함한 상품부문이 지난달 2월 대비 0.5%(전국:0.3%) 하락함
- 도시가스가 오른 공공서비스 및 납입금과 학원비 등이 인상된 개인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부문은 지난달 2월 대비 0.8%(전국:1.0%) 상승함

■ 서울 생활물가지수 소폭 상승, 신선식품지수 하락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생활물가는 지난달 2월 대비 0.6%로 전국상승률(0.6%)과 유사하나, 지난해 3월 대비 생활물가는 3.1%로 전국의 상승률(2.6%)을 약간 상회함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 2월 대비 1.5%, 지난해 3월 대비 0.3% 하락함
- 지난달 2월 대비 양파(15.1%), 닭고기(9.9%), 토마토(9.1%), 납입금(사립대: 7.5%, 전

문대 7.2%, 유치원: 6.3%), 배추(5.9%)는 상승하였으며, 시금치(-34.2%), 상추(-18.4%), 딸기(-14.3%), 부추(-10.2%), 무(-9.8%) 등은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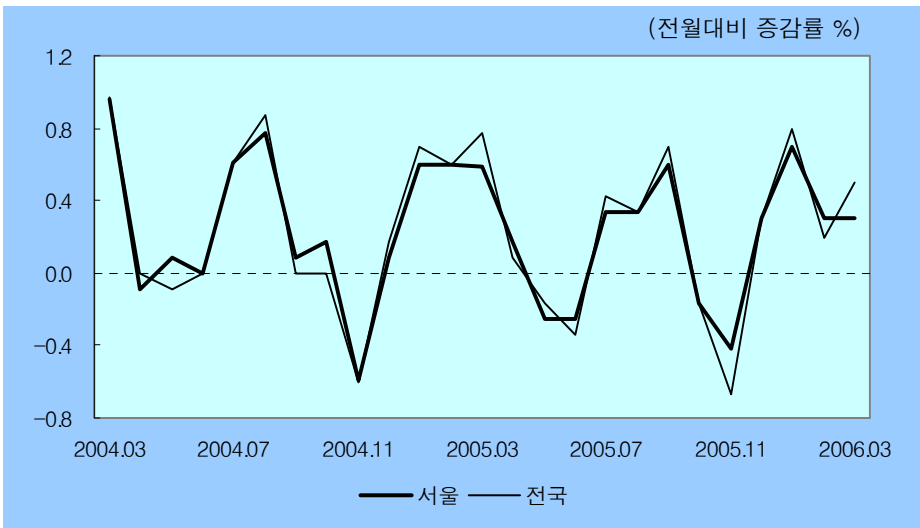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0=100.0, 단위: %)

구 분		2005.3	2005.10	2005.11	2005.12	2006.1	2006.2	2006.3	
전 월 비	전국	0.8 (3.1)	-0.2 (2.5)	-0.7 (2.4)	0.3 (2.6)	0.8 (2.8)	0.2 (2.3)	0.5 (2.0)	
	서울	0.6 (2.9)	-0.2 (2.0)	-0.4 (2.2)	0.3 (2.5)	0.7 (2.5)	0.3 (2.3)	0.3 (2.0)	
	성질별	상품	0.5 (4.0)	-0.3 (2.8)	-1.5 (2.8)	0.7 (3.6)	1.1 (3.5)	0.2 (2.5)	-0.5 (1.5)
		서비스	0.7 (2.2)	0.0 (1.6)	0.3 (1.8)	0.1 (1.6)	0.5 (1.9)	0.3 (2.1)	0.8 (2.3)
	생활물가	1.1 (4.8)	-0.2 (3.2)	-0.8 (3.5)	0.5 (4.0)	1.2 (4.2)	0.4 (3.7)	0.6 (3.1)	
	신선식품	1.6 (6.4)	-1.5 (0.3)	-8.2 (0.6)	3.7 (6.2)	5.7 (9.3)	0.5 (2.7)	-1.5 (-0.3)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국고채 수익률 소폭 상승

■ 국고채 유통수익률 소폭 상승

- 2006년 3월중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은 3월 초반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의 금리인상 예상,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잠시 반등하였으나 3월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동결 등으로 중순 이후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는 안정세를 보여 4.93%를 나타냄
- 2006년 3월중 회사채 수익률(3년)은 지난 2월에 비해 0.09%p 하락한 5.25%를 나타냄
- 회사채(공모)는 일부 우량 대기업의 운영자금 조달 등을 위한 발행이 늘어난 데다 만기 도래 규모가 줄어들어 순발행으로 전환함(2006년 2월: -1.2조 원 → 3월 0.7조 원)

■ CD(91일) 유통수익률 미미한 상승

- 2006년 3월중 CD(91일) 유통수익률은 지난 2월의 4.26% 보다 0.01%p 상승한 4.27%로 특별한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함
- 2006년 3월중 콜금리(1일)는 3.97%로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치인 4.00%(2006년 2월 9일: 3.75% → 4.00%, 2006년 3월 9일: 4.00% → 4.0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안정세를 유지함

■ 장·단기 금리차 소폭 확대

- 2006년 3월중 장·단기 금리차는 국고채 상승과 콜금리 감소로 지난 2월 대비 0.05%p 상승한 0.96%를 기록함

■ 3월중 KOSPI 조정 국면 지속

- 2006년 3월중 KOSPI 지수는 주식형 수익증권으로의 자금유입이 둔화되는 가운데 3월초 IT기업들의 실적둔화 우려, 미국 등 글로벌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하락세를 보여 1,300~1,370대에서 등락을 하다 지난 2월 대비 0.87% 하락한 1,359.60로 마감함
- 주가변동성 확대와 함께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액도 축소하였으나, 3월 23일(1,312.26) 이후 일본 등 해외증시가 상승하고,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 하면서 상승세를 지속함

- 2006년 3월중 KOSDAQ 지수는 지난 2월 대비 2.51% 하락한 665.21로 마감하여 2005년 11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됨

■ 원/달러 환율 지난 2월 대비 소폭 상승

- 2006년 3월중 원/달러 환율은 3월초 상승세를 보였으나, 3월 중반 이후 박스권을 유지하며 지난 2월 보다 소폭 상승한 971.60원으로 마감함
- 3월 초반에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배당금 역송금 기대로 엔/달러 상승과 함께 982.2원(3월 9일)까지 상승함
- 3월중반 이후 미국 경상수지 사상 최대 적자 소식 등과 함께 다소 하락한 이후 960원대 후반~970원대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함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5.11	2005.12	2006.01	2006.02	2006.3	2006.04.24	전월비	
금리	국고채(3년)	5.10	5.08	4.92	4.90	4.93	4.88	0.03
	회사채(3년)	5.51	5.52	5.42	5.34	5.25	5.15	-0.09
	CD(91일)	3.95	4.09	4.18	4.26	4.27	4.36	0.01
	콜금리(1일)	3.50	3.76	3.76	3.99	3.97	3.97	-0.02
	장·단기 금리차 ¹⁾	1.60	1.32	1.16	0.91	0.96	0.91	0.05
주 가								
KOSPI ²⁾	1,297.44	1,379.37	1,399.83	1,371.59	1,359.60	1,430.94	-0.87	
KOSDAQ ²⁾	712.39	701.79	690.24	682.36	665.21	695.70	-2.51	
환율(₩/US\$) ²⁾	1,033.50	1,011.60	964.60	970.90	971.60	939.8	0.07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콜금리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3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반전

- 2006년 3월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2월에 이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2006년 2월: 2.9조 원 → 3월: 2.6조 원)
- 주택담보대출은 1.2조 원 늘어나 지난 2월(0.6조 원) 및 지난해 3월(0.5조 원) 실적을 상회함
- 이는 이사, 결혼 등 계절적인 수요와 은행의 대출취급 경쟁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 자격요건 강화(2월 27일 시행)가 맞물린데에 기인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은 지난해 3월 실적(0.6조 원)을 상회하는 1.5조 원 증가함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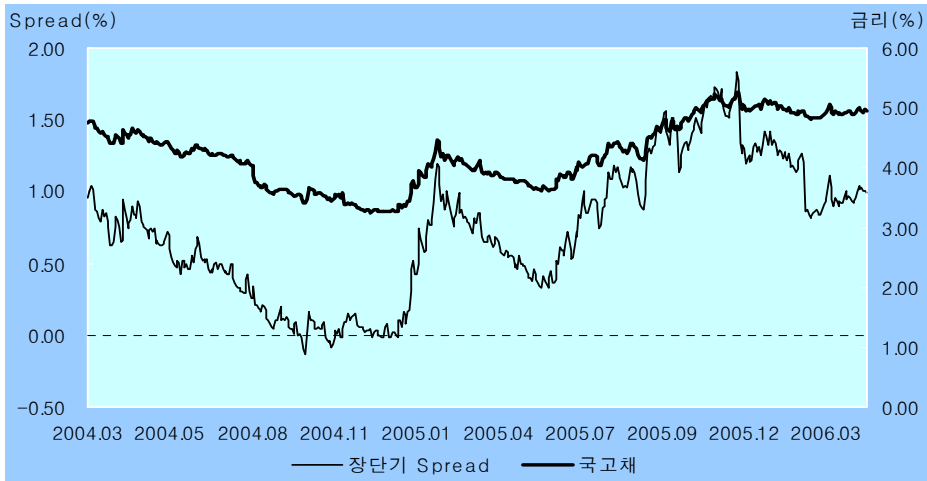
(기간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구 분	2005.03	2006.01	2006.02	2006.03	월말잔액		
					2006.02	2006.03	전월비
가계대출 ¹⁾	1.1	-0.5	2.9	2.6	307.1	309.8	0.88
주택담보대출 ²⁾	0.5	0.3	0.6	1.2	191.2	192.3	0.58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0.6	-0.7	2.3	1.5	114.4	116.0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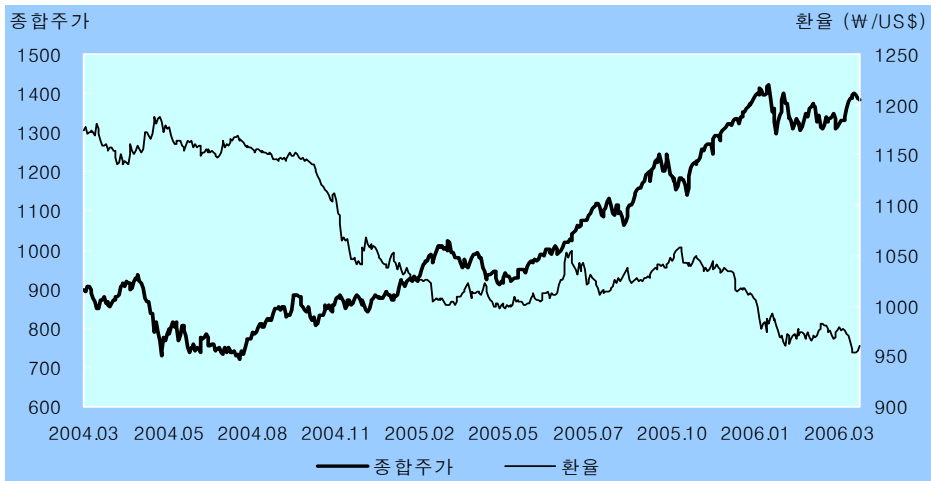
주: 1) 증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창 · 업 · 동 · 향 |

서울의 신설법인 수 감소세로 반전

- 전국 신설법인 수 소폭 감소
 - 2006년 2월중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635개 업체로 58개 업체가 감소하여 지난 1월에 비해 1.2%의 감소를 나타냄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지난 1월에 비해 3.1%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2.2%, 서비스업은 2.0% 감소함
- 서울의 신설법인 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반전
 - 2006년 2월중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지난 1월에 비해 91개 업체가 감소하여 4.9%의 감소를 나타내며, 전국대비 비중은 지난달(39.3%)에 비해 소폭 감소한 37.8%임
 - 이는 서비스업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며 이에 반해 제조업과 건설 및 설비업은 지난 1월에 비해 증가함
- 서울의 서비스업 감소,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신설법인 수 증가
 - 2006년 2월중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는 지난 1월에 비해 7.5% 감소한 1,400개 업체이며, 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대비 79.9%의 비중을 차지함(2005년 2월 비중: 84.2%)
 -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0.0%, 운수업이 43.4% 증가한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은 -20.2%, 통신업은 -16.9% 감소함
 - 서울의 제조업 신설법인 수(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수 대비 9.6%의 비중)는 지난 1월에 비해 12.7% 증가하고 건설 및 설비업 신설법인 수(서울의 전체 신설법인 수 대비 10.4%의 비중)는 3.4% 소폭 증가함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5.02	2005.11	2005.12	2006.01	2006.02	전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3,690	4,199	4,388	4,693	4,635	-58	(945)	-1.2	(25.6)
서울	1,437	1,699	1,711	1,844	1,753	-91	(316)	-4.9	(22.0)
서비스업	1,210	1,409	1,442	1,513	1,400	-113	(190)	-7.5	(15.7)
제조업	107	132	132	150	169	19	(62)	12.7	(57.9)
건설 및 설비업	120	159	136	177	183	6	(63)	3.4	(52.5)

주: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의 어음부도율 보험세 지속

■ 전국의 어음부도율 4개월 연속 같은 수준

- 2006년 3월중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4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2월에 비해 26.2%(50개소) 증가한 241개소로 지난 2005년 평균(285개소) 보다는 적은 수준임
- 업종별로는 제조업(2006년 2월: 63개 → 3월: 93개) 및 서비스업(2006년 2월: 80개 → 3월: 94개)을 중심으로 증가함

■ 서울의 어음부도율 보험세 지속

- 2006년 3월중 서울 어음부도율은 0.01%로 5개월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지난 2월에 비해 17개소 증가한 88개소로 이는 전국 부도업체 수 중에 36.5%를 차지함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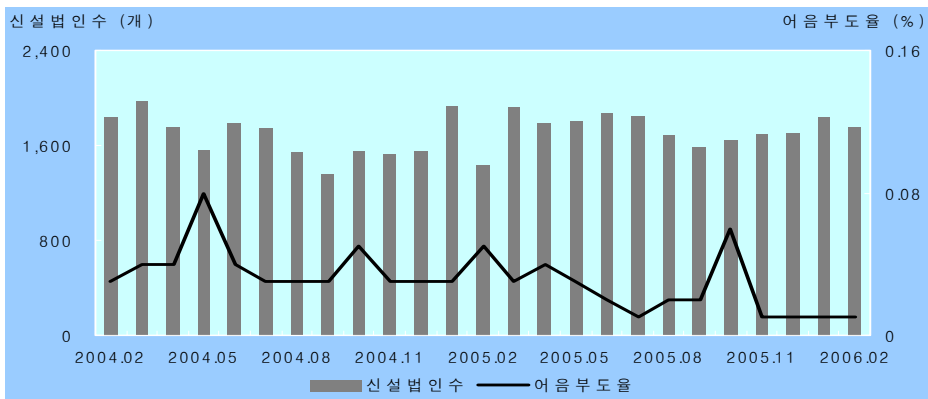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5.03	2005.12	2006.01	2006.02	2006.03	전월비		
						증감	증감률	
전 국 어음부도율	0.04	0.02	0.02	0.02	0.02	0.00 (-0.02)	-	-
전 국 부도업체 수	359	256	213	191	241	50 (-118)	26.2 (-32.9)	
서 울 어음부도율	0.03	0.01	0.01	0.01	0.01	0.00 (-0.04)	-	-
서 울 부도업체 수	151	88	82	71	88	17 (-63)	23.9 (-41.7)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안은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특례보증 종료 및 일반보증 증가추세 지속

■ 일반보증 증가추세 지속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3월중 946건, 21,442백만 원으로 지난해 3월에 비해 건수 52.1%, 금액 44.0% 감소하였음
- 특례보증의 종료로 인하여 지난해 및 지난달에 비해 건수, 금액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평균 보증금액은 22.7백만 원으로 최근 2개월 연속 증가 추세임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은 3월 27일 종료되었으며, 당초 계획 1,000억 원 중에서 약 997억 원이 지원됨

<표> 월간 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 원, %, %p)

구 분	2005.03	2005.11	2005.12	2006.01	2006.02	2006.03	전년동월비	
							증감	증감률
건수	1,974	3,759	2,767	1,761	1,244	946	-1028 (-298)	-52.1 (-24.0)
금액	38,300	47,033	32,168	19,972	21,800	21,442	-16858 (-358)	-44.0 (-1.6)
건당평균금액	19.4	12.5	11.6	11.3	17.5	22.7	3.3 (5.2)	3.3 (5.2)

주: ()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업종별 보증잔액 비율 지난 2월 수준 유지

- 2006년 3월 31일 현재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금액기준)은 특례보증이 종료함에 따라 큰 변동 없이 지난 2월과 비슷한 비율분포를 나타냄

<표> 업종별 신용보증 잔액현황(2006년 3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업체수	4,875	18,558	9,745	8,887	2,685	44,750
비율	10.9	41.5	21.8	19.8	6.0	100.0
금액	112,240	358,264	147,169	165,271	52,981	835,925
비율	13.4	42.9	17.6	19.8	6.3	10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보증비율 증가세 주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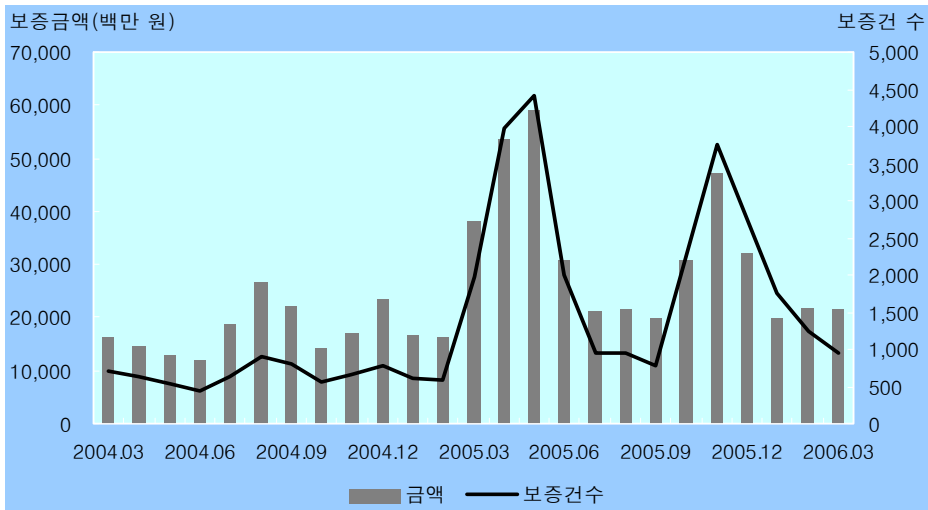
- 2006년 3월 31일 현재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잔액(금액기준)은 특례보증이 종료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보증점유비가 지난 2월 수준에 머물렀으며 소기업의 비중은 0.1% 증가한 11.1%임

<표>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잔액현황(2006년 3월 31일 현재)

(단위: 개소, 백만 원, %)

구분		2006.01	2006.02	2006.03	전월비증감
소상공인	업체수	40,595	41,525	42,091	566
	비율	93.9	94.0	94.1	0.1
	금액	697,092	709,617	720,160	10,543
	비율	86.0	86.1	86.1	0
소기업	업체수	2,444	2,438	2,456	18
	비율	5.6	5.5	5.5	0
	금액	90,627	90,919	92,431	1,512
	비율	11.2	11.0	11.1	0.1
중기업	업체수	196	200	203	3
	비율	0.5	0.5	0.4	-0.1
	금액	22,545	23,405	23,335	-70
	비율	2.8	2.9	2.8	-0.1
합계	업체수	43,235	44,163	44,750	587
	비율	100	100	100	0
	금액	810,264	823,941	835,925	11,984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Box>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자금 특별보증」 시행

2006년도 서울시 □자영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연계를 통한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자금 특별보증□을 시행함

▶ 시행목적

- 외환위기 이후 기업 도산해외이전 등으로 실직자가 늘면서 생활형 자영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부진 및 수익저하 등으로 경제양극화의 심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영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창업 및 건실한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대상기업: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창업교육(최하12시간이상)을 이수하고 「사업성 컨설팅」 또는 「입지 및 상권분석 컨설팅」을 받은 자로
- 창업(사업자등록일 기준)후 3개월 이내의 소상공인
단,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사업장이 확보(자가구입 또는 임대차계약 완료 후 보증금완납)된 경우에 한함.
- 업종전환 및 사업장이전 등 경영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

▶ 보증지원내용

구 분	소상공인 창업자금 보증	소상공인 사업장임차자금 보증
지원규모	연간200억원(약1,000개업체)	연간100억원(약200개업체)
지원금액	업체당 2천만원이내	업체당 5천만원이내
보증비율	90% 부분보증	100% 전액보증
지원자금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연4.5%(변동)	
상환조건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기 타	서울소재 각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창업지원 신청	

▶ 시행기간: 2006년 4월 3일 ~ 12월(자금소진시 까지)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출액 감소폭 확대, 수입액 증가폭 축소

■ 전국의 수출 사상최고치를 갱신함

- 2006년 3월중 전국의 수출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27,035백만 불로 지난해 3월에 비해 12.9% 증가하며 월간 수출액 사상 최고치(2005년 11월 25,826백만 불)를 갱신함
- 이는 주력제품인 반도체(11.6%), 자동차(12.9%), 자동차부품(36.6%), 일반기계(22.33%), 선박(62.1%)의 고른 수출호조에 힘입은 것에 기인함

■ 전국의 수입 에너지와 소비재 수입 증가로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전국의 수입은 지난해 3월에 비해 13.0% 증가한 25,750백만 불로 이는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수입 증가와 내수회복 및 수입 물가 하락에 따른 소비재 수입이 크게 증가한데에 기인함
- 성질별로는 원자재(19.8%)와 소비재(17.6%)가 전체 수입증가를 견인하는 가운데 자본재(12.5%)는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시현함

■ 서울의 수출액 감소폭 확대

- 서울의 수출액은 지난해 3월에 비해 6.6% 감소한 2,214백만 불로 157백만 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성질별로 살펴보면 원자재(1.3%)는 증가하였지만, 내구재 소비재의 감소가 두드러진 소비재(-19.6%)가 감소하고, 자본재(-1.9%)도 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소함

■ 서울의 수입액 증가폭 축소

- 서울의 수입액은 4,921백만 불로 이는 지난해 3월에 비해 8.2%(371백만 불) 증가한 금액임
- 성질별로는 소비재(19.2%), 자본재(4.8%), 원자재(4.7%) 모두 증가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5.03	2005.11	2005.12	2006.01	2006.02	2006.03	전년동월비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23,952	25,826	25,632	23,309	23,831	27,035	3,083	(3,204)	12.9	(13.4)
	수입	22,780	23,850	24,186	22,809	23,405	25,750	2,970	(2,345)	13.0	(10.0)
서울	수출	2,371	1,922	2,064	1,650	1,781	2,214	-157	(433)	-6.6	(24.3)
	수입	4,550	4,639	4,646	4,224	4,288	4,921	371	(633)	8.2	(14.8)

주: ()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무역협회

| 건·설·경·기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및 건설수주액 감소

■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증가

- 2006년 2월중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7,439천㎡²으로 지난해 2월 대비 32.3% 증가하였으며 1월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한편 지난 1월 대비 전국의 건축허가면적은 13.7% 감소하였음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감소

- 2006년 2월중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389천㎡²로 전국 건축허가면적의 5.2%이며,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에 비해 51.3% 감소, 지난 1월에 비해 57.6% 감소함
- 이는 전체 서울 건축허가면적의 91.4%의 비중을 차지하는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2006년 2월중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2월에 비해 55.1% 증가하였으나 지난 1월에 비해서는 69.9% 감소함. 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2월 대비 연립(147.1%)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단독은 18.2% 감소함

〈표〉 건축물 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5.2	2005.11	2005.12	2006.1	2006.2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국	5,622	8,355	16,688	8,622	7,439	32.3	(-13.7)	
서울	799	610	1,101	917	389	-51.3	(-57.6)	
주거용	소계	69	135	596	355	107	55.1	(-69.9)
	단독	11	13	11	11	9	-18.2	(-18.2)
	연립	17	52	115	199	42	147.1	(-78.9)
	아파트	41	67	462	142	55	34.1	(-61.3)
비주거용	소계	730	475	494	561	283	-61.2	(-49.6)
	상업	498	370	315	409	182	-63.5	(-55.5)
	공업	1	8	27	11	6	500.0	(-45.5)
	문교/사회	226	75	86	128	88	-61.1	(-31.3)
기타	5	19	65	12	7	40.0	(-41.7)	

주: 연립은 다세대-다가구 포함,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시 건축과

2006년 2월중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은 지난해 2월에 비해 61.2% 감소하였고, 지난 1월 대비 49.6% 감소하여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특히 상업과 문교/사회에서 지난해 2월 대비 각각 63.5%, 61.1% 감소함

■ 성동구, 강남구, 동대문구 건축허가면적 높음

- 2006년 2월중 서울 건축허가면적은 성동구(49,230천㎡), 강남구(33,483천㎡), 동대문구(31,151천㎡), 중구(30,273천㎡)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도봉구(1,661천㎡), 강북구(3,586천㎡), 중랑구(5,745천㎡)에서 낮게 나타남

■ 2월중 서울의 건설수주액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 수주액은 전국대비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구성비 20.05%, 지난달 1월 구성비가 16.49%인데 비해 낮음
- 2006년 2월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4,543,215백만 원으로 지난해 2월 대비 22.2% 증가한 데 비해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410,692백만 원으로 지난해 2월 대비 44.9% 감소함
- 관공서, 문화재, 철도 부문과 같은 공공부문에서 34.8%, 기숙사, 재건축, 대형상가, 연구소와 같은 민간부문에서 45.4% 각각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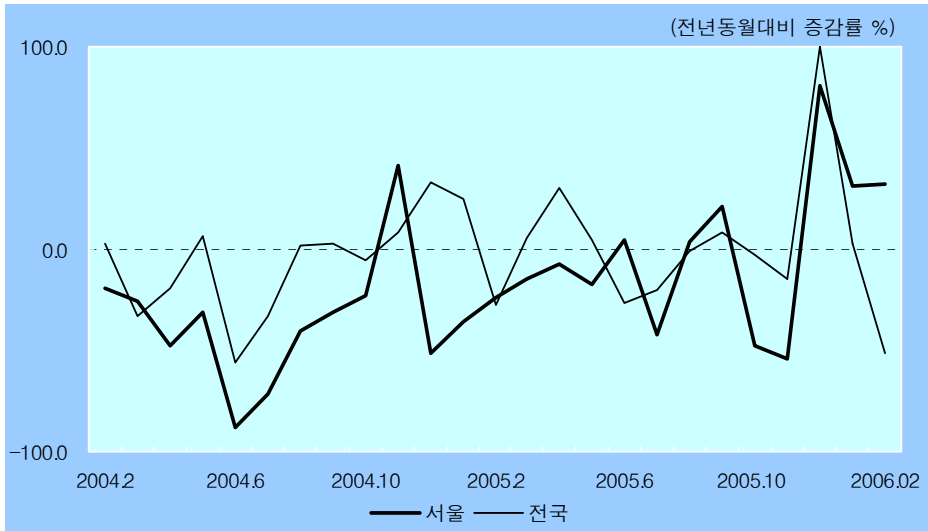
〈표〉 건설수주액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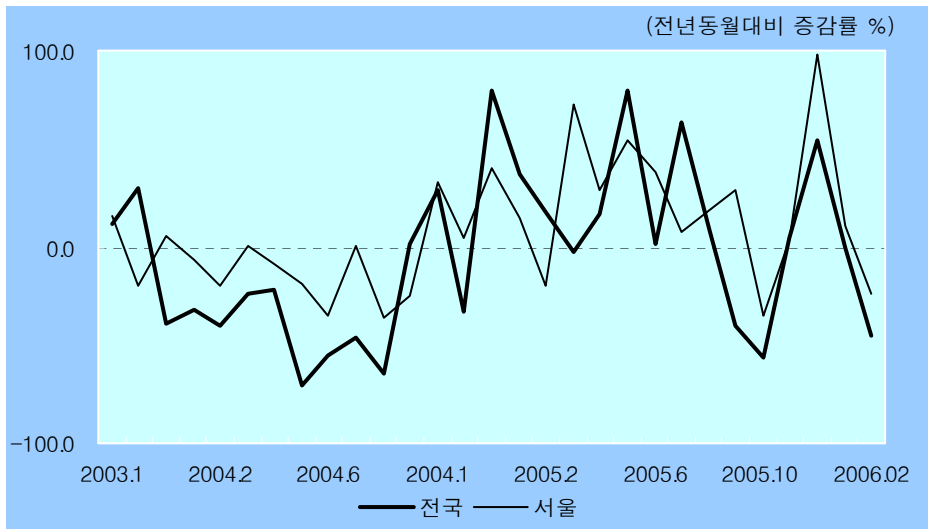
구 분	2005.2	2005.11	2005.12	2006.1	2006.02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국	3,718,139	6,381,963	12,608,745	5,996,398	4,543,215	-24.2	(22.2)
서울	745,367	979,713	1,513,908	986,833	410,692	-44.9	(-58.4)
발주 자별	공공 32,314	229,782	200,884	34,067	21,073	-34.8	(-38.1)
	민간 713,053	700,508	1,190,873	840,637	389,584	-45.4	(-53.7)
공중 별	건축 716,280	861,624	1,458,960	981,977	388,184	-45.8	(-60.5)
	토목 28,819	74,201	29,729	4,606	20,055	-30.4	(335.4)

주: ()괄호안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축허가면적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발주액 추이

| 주 · 택 · 가 · 격 |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 3월중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2월 대비 0.6%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학군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주원인으로 분석됨

■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 3월중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2월 대비 1.2%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전국의 2배로 확대
- 지역별로는 서울 동남권과 서남권 일부지역이 상승을 주도하였고 유형별로는 아파트, 규모별로는 대형이 가격 상승의 주요인으로 풀이됨
- 지역별로는 강남이 1.8%, 강북이 0.5% 상승하여 강남이 강북보다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강남북간 가격상승의 차별화가 심화됨

■ 강북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2006년 3월중 강북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2월 대비 0.5% 상승함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됨
- 주택매매가격의 주요 상승지역은 종로구(2.2%), 중구(1.1%), 용산구(1.0%)로서 종로구는 서울의 평균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을 상회함
- 반면 도봉구(0.2%), 강북구(0.1%), 동대문구(0.1%)는 낮은 상승률을 나타냄

■ 강남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지속

- 2006년 3월중 강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 2월 대비 1.8% 상승하여 2005년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 확대됨
- 주택매매가격의 주요 상승지역은 양천구(3.3%), 강남구(2.8%), 송파구(2.6%), 서초구(2.3%)로 2% 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로구(0.7%), 금천구(0.2%)는 낮은 상승률을 보여줌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3	2005.12	2006.1	2006.2	2006.3
전국	0.4	0.2	0.3	0.5	0.6
서울	0.3	0.4	0.6	0.8	1.2
아파트(서울)	0.5	0.5	0.9	1.1	1.8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0.3	0.1	0.2	0.3	0.5
강남	0.4	0.7	1.0	1.2	1.8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 2006년 3월중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대비 1.8% 상승하여 상승폭이 확대됨
- 강남은 2.6%, 강북은 0.5%로 강남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 구별 아파트 매매가격을 보면 양천구(5.3%), 강남구(3.4%), 송파구(3.2%), 서초구(2.6%)로 지난달 2월 대비 2.5% 대 이상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었으며, 금천구(0.4%), 은평구(0.4%), 중랑구(0.4%), 강북구(0.3%), 노원구(0.3%), 도봉구(0.2%), 동대문구(0.2%)는 0.5%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냄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상승폭 확대

- 서울의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은 지난 2월 대비 4.5% 상승하여 200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전월대비 증가율을 보임
- 3월중 아파트 평당 가격이 높은 구는 강남구(2,897.8), 서초구(2,360.7), 송파구(2,161.6), 용산구(1,881.5), 양천구(1,766.9)이며, 평당 가격이 낮은 구는 강북구(692.12), 도봉구(701.33), 중랑구(704.52), 노원구(709.21), 금천구(711.03)임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2003.0=100.0, 단위: %)

구 분	2005.03	2005.12	2006.01	2006.02	2006.3
전국	0.4	0.2	0.4	0.4	0.7
서울	0.1	0.2	0.6	0.7	1.2
아파트(서울)	0.3	0.4	0.9	0.9	1.5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0.2	0.1	0.4	0.8	1.0
강남	0.1	0.4	0.7	1.0	1.4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 3월중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2월 대비 0.7% 상승하였으며 이는 쌍춘년에 따른 결혼 증가로 신혼가구 수요의 증가와 국지적인 재건축 이주수요 발생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3월은 봄 이사철 후반기로 평균적으로 연중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20년 평균 3월 변동률(1.7%)을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 3월중 서울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2월 대비 1.2% 상승하여 2006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폭 확대
- 재건축 이주가 집중된 광명과 인접한 서울 서남권의 상승이 두드러진 반면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한 서울 동남권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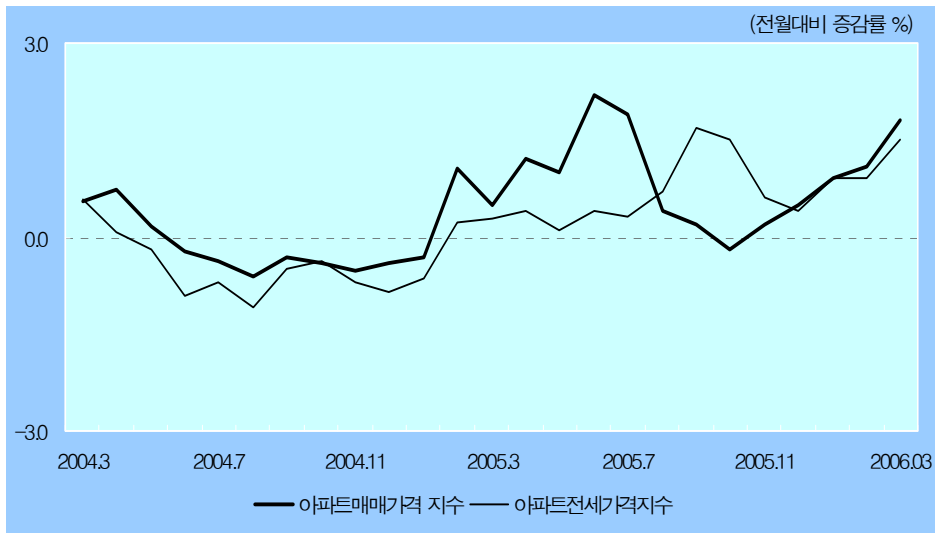
- 2006년 3월중 강북의 주택전세가격은 지난 2월 대비 1.0%, 강남의 주택전세가격은 1.4% 상승함
- 강북의 주택 전세가격은 성동구(1.6%), 노원구(1.6%), 성북구(1.4%), 광진구(1.2%), 은평구(1.2%), 종로구(1.2%)는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서대문구(0.5%), 용산구(0.3%), 강북구(0.2%)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음
- 강남의 주택 전세 가격은 양천구(2.2%), 강서구(2.1%), 관악구(2.1%), 구로구(1.7%), 영등포구(1.5%)는 평균보다 상회하고 있으며, 송파구(0.9%), 강동구(0.8%), 강남구(0.7%)는 1% 미만의 상승률을 나타냄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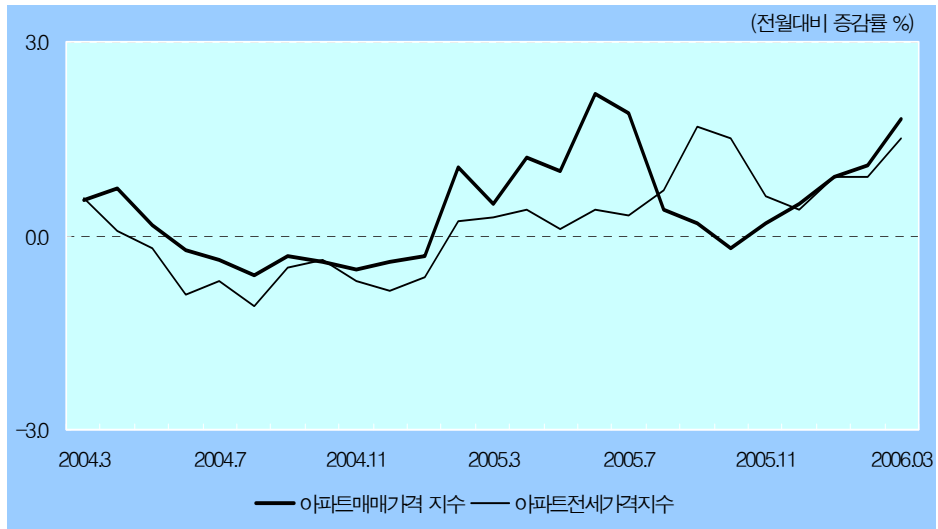
- 2006년 3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5% 상승하여 지난 2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함
- 지역별로는 강북은 1.3%, 강남은 1.6% 상승함에 따라 강남북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강남이 더 높은 상승률을 보임
- 구별로는 강서구(3.0%), 양천구(2.9%), 동작구(2.1%), 금천구(2.0%), 성동구(2.0%)의 상승폭이 컸으며, 강남구(0.7%), 서대문구(0.5%), 동대문구(0.5%), 중구(0.3%), 은평구(0.2%)는 상승폭이 적음

■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3개월 연속 보합세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48.4%로 2006년 1월 이후 주택경기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Box〉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정책

건설교통부는 8.31대책에서 미진했던 재건축 시장 안정화를 통해 2005년 말부터 불안조짐을 나타내던 강남지역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8.31 후속대책 발표(2006년 3월 30일)

▶ 재건축개발이익환수

- 부과지역은 전국이고 부과대상은 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된 경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부과
- 부담금은 종료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착수시점의 주택가격과 기반시설부담금, 임대주택건설에 따른 지분 감소액, 건축비 등 각종 개발비용, 집값 상승분을 뺀 뒤 0~50%의 부담률(조합원 평균 개발이익 기준)을 곱해 산정
- 부과대상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 이전단계의 사업장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는 착수에서 종료시점까지 전 사업기간에 대해 부담금을 뺐은 뒤 이를 제도시행일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안분, 시행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과. 개발이익이 미미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등은 면세점을 뒤 감면혜택이 부여

▶ 재건축 제도 합리화

-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비리, 재건축조합 임원의 전횡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올 상반기 중 시행 예정
- 먼저 재건축 추진위가 철거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하지 못하게 하는 등 추진위원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입찰 최소 참여업체를 3-5개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바꾸기로 함
- 설계변경 시 반드시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건축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자체와 건교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안전진단 절차도 대폭 강화,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적기관에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맡기고 현재 구청에 주어던 안전진단 결과 재검토 의뢰권한을 시·도지사와 건교부로 상향 조정

▶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강화. 그 동안 실거래신고만 해오던 것을 자금조달계획과 해당지역 내 주택 입주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함
-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당해 주택 입주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함

▶ 기준도심 광역적 재정비

- 2006년 7월 시행되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통해 비강남권 지역의 교육·문화·교통 등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추진
- 정부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20% 범위에서 완화해주고 용도지역, 용적률, 층수 제한 대폭 완화

▶ 분양가 인하

-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시 감정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행위제한 시점을 지구지정일에서 공람공고일로 앞당겨 용지보상 합리화
- 광역기반시설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 전용 25.7평 이하 서민용 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에 일정률(수도권 10%, 광역시 0%, 지방 -10%)을 가감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택지 공급가격을 낮추기로 함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건축·토목·회계 등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분양승인을 내줄 방침

〈Box〉 계속

구분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0~50% 범위, 사업집행 사업장도 포함	8월
	제도합리화	안전진단 절차, 기준 강화, 조합 운영 투명화	-
	분양가 인하	택지공급 가격인하, 택지조성비 절감	-
서민주거복지	저소득층 주거안정	전세자금 수혜가구 3만가구로 확정 공공부문임대주택 7년간 86만 4천 가구 비축	-
수요관리	주택담보대출강화	대출범위 부채상환비율(DIT) 40% 이내	4월
기타	도심광역 재정비	시범사업 3~4곳 선정,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9월
	주택거래신고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입주여부 신고의무화	6월